

## 동부교회 새벽기도 (2024.08.19)

|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
| 본문  | 겔 37:1-11 |
| 설교자 | 김동권 목사님   |
| 장소  | 동부교회 본당   |

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. 성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다.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음성으로 들었다. 너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.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이다.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. 또 너는 영원히 산다. 영생이다.

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신앙이 출발한 것이다. 두달 동안 교회다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.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.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. 새벽기도와 퇴근 후 술집이 아니라 교회에 갈 것을 말씀하셨다.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보는 생활이다.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며 말씀으로 엮어진 것이다.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.

구원받은 사람은 그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릴 것이다.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. 불신자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다.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.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. 그러면 늘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다. 살았다는 것, 구원받았다는 것,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다.

퇴근시간에 술집이 아니라 교회에 가 봤다. 참 신기하다. 종점에 있는 교회였다. 그런데 문을 안 잠가놨다. 그 때 문을 잠가놨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.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지, 이 맛을 봤는데 어찌 새벽에 안 나올 수 있겠는가? 술집에서 통행금지 되기 전까지 있던 것이 습관이 되어, 교회에서 퇴근 후에 성경을 보게 되었다.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, 이후에 성령충만이 왔다.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다. 그때부터 능력충만 지혜충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. 이전과 완전 틀리다.

성경을 보니 인생이 다 있다. 하나님의 사람 보니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셨다.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봤다. 그러면서 갈 2:20 을 본 것이다. 예수믿고 1년 반만에 이것이 왔다. 이때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임을 보았다. 이 교회 세운 것은 병든 인간, 죽은 인간 살리기 위함이다.

자전거를 사서 전도한 사람중 영성이 있는 사람을 새벽에 새벽기도로 불렀다. 오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. 한국교회 다 마른 뼈들이 와있다. 새벽기도 나온 것에 감사해라. 아무나 나올 수 없다.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나올 수 있다.

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다. 그러다보니 입에서 복음만 나온다. 이런 믿음의 행진하기를 축원한다.